

장군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, 서로를 믿고 협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.

완도군의회 또한 총무공의 정신을 이어받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,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이 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장군의 넋을 기리며, 그 숭고한 정신이 후대에도 길이 전해지길 바랍니다.

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전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, 장군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.

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

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

2024. 12. 19.(목) 10:30
묘당도 총무사

「2024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」
총무공 이순신장군 제426주기 순국제 추모사



완도군의회

충무공 이순신장군 제426주기 순국제 추모사

2024. 12. 19.(목) 10:30 / 묘당도 충무사

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,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
군민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

완도군의회 **김양훈** 의장입니다.

오늘 충무공 이순신장군 제426주기 순국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
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**이태종** 양성 이씨 대종회
총무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또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**신의준** 도의원님과 **허중희** 동료
의원님, **이성일** 완도경찰서장님, **이철영** 교육장님, **추강래** 문화원장님,
이천희 청년회장님, **박봉욱** 완도장보고연구회 이사장님, **한지영** 과장님을
비롯한 내외 귀빈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.

아울러 오늘 순국제를 성대하게 준비해주신 **정옥현** 충무사
보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
드립니다.

오늘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,
그 애국과 충의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이곳 묘당도 충무사에
모였습니다.

장군께서 순국하신 지 426년이 흘렀지만, 그분의 정신은 여전히
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며, 이 나라를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
되고 있습니다.

특히 이 곳 고금도는 이순신 장군께서 정유재란 때 본영을
설치하고 명나라 수군과 연합군을 이뤄 일본군에 맞섰던 유서
깊은 곳이고, 조선 수군의 마지막 본영이 이 곳이었습니니다.

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나라의 위기에 가장 앞장서서 싸웠으며,
자신의 안위보다 백성과 나라를 먼저 생각한 진정한 충의의
표상이었습니다.

이순신 장군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책임감은 우리에게 큰
교훈을 줍니다.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
그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애국이며,
공동체를 위한 헌신인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.